

서문

지금까지 국제정치사상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나는 국제정치이론의 영역에 정치사상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국제정치사상이다. 이러한 국제정치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해당 사상가의 사상적 체계나 의도를 추적하기보다, 이 사상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이론적 유용성에 역점을 둔다는 것이다. 예컨대, ‘로크의 국제정치사상’이란 로크가 고려한 국제적 요소가 로크 정치사상의 체계 안에서 어떤 의의를 갖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치사상 중 일부의 요소, 이를테면 그의 “평화로운 자연상태론”을 국제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특정 국제정치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전적 현실주의자들이나 신현실주의자들이 투키디데스의 국제정치사상을 투키디데스의 포괄적인 사상체계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국제정치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투키디데스라는 사상가를 활용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식의 국제정치사상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인 정치사상가가 국제정치에 ‘결눈질’한 것으로 국제정치사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국제정치적 문제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전통적인 정치사상가의 중심주제에서 한걸음 떨어져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즉 모름지기 정치사상의 핵심적인 주제는 국가라는 정

치공동체의 대내적 문제에 국한된 것이므로 국제정치는 기껏해야 그것의 환경적 요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만일 주류 정치사상가가 ‘고맙게도’ 국제정치적 주제를 다룬 저작을 남긴 경우, 이를 해당 정치사상가의 핵심 사상과 연계시키기보다 그의 단편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인다. 이를테면, 밀의 국제정치사상이란, 굳이 그의 공리주의 사상이나 자유론 혹은 대의제론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 않더라도 그의 “불간섭 원칙에 대한 소고”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는 밀의 국제정치사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굳이 그의 핵심적인 정치사상과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칸트 철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없이도, 그의 국제정치 관련 저작에 대한 분석만으로 칸트의 국제정치사상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이와 비슷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지금까지 “국제정치사상”에 대한 지배적인 이해는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사상적” 측면을 보완하여 이론의 정교화를 꾀하는 국제정치이론의 보조 기능으로 이해되거나, 정치사상의 다양한 주제 가운데 “국제적인 것”만을 소재로 삼은 특수한 정치사상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 어느 쪽이든 국제정치사상을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지위만을 허용한다. 그러나 최근 역사학계 특히 지성사 학계를 출발점으로 국제정치사상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지성사의 대상인 과거 이념의 생성과 전파가 처음부터 국제적 요인과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음을 주목하고, 이에 따라 기왕의 전통적인 지성사가 간과했던 국제사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¹ 정치사상 영

역에서도 전통적인 정치사상가들의 중심 주제가 그들의 국제적 사고와 연계되어 있음을 주목하는 소위 정치사상의 “국제적 전환”이 전개되고 있다.² 이러한 “국제적 전환”의 추세는 최근 지구화로 인해 전 지구적 쟁점들이 부상하면서 보다 가속화되는 양상을 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사상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현재 없다. 전통적인 정치사상이나, 국제정치이론, 지성사 등은 각기 다른 방식대로 “국제정치사상”을 이해하고 각기 다른 목적과 강조점을 갖고 국제정치사상에 접근하고 있다.

이 편집본은 현재 국제정치사상이 처한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국제정치사상이 더 이상 기존 학문의 보조적 지위만을 갖거나, 특수한 영역에만 한정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각 장의 저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적인 정치사상가들에 접근하여 이들의 국제정치사상을 해석하였다. 혹자는 지성사적 맥락을, 혹자는 사상가가 처한 정치사적 상황을, 혹은

- 1 David Armitage, 2004, “The fifty years rift: intellectual hist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odern Intellectual History* 1 (1).
- 2 Richard Tuck, 1999, *The Rights of War and Peace: Political Thought and the International Order from Grotius to Kant*, Oxford University Press; Thomas Pangle and Peter Ahrens Dorf, 1999, *Justice Among Nations: On the Moral Basis of Power and Peace Paperback*, University Press of Kansas; David Armitage, 2013, *Foundations of Modern International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nkar Muthu, 2003, *Enlightenment against Empi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Edward Keene, 2005,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A Historical Introduction*, Polity; Lee Ward, 2010, *John Locke and Modern Lif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eniffer Pitts, 2005, *A Turn to Empire: The Rise of Imperial Liberalism in Britain and Fra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사상가의 내적 일관성 등을 강조하면서, 나름대로 독특한 방식으로 각각의 사상가들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법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이 공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탐구한 국제정치사상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보편적 교훈”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깝게는 수 세기, 멀게는 수천 년을 떨어진 과거의 사상가로부터 얻어낸 국제정치사상이 보편적 교훈을 지닌다고 가정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보편성의 정도와 수준 그리고 보편적 교훈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연구자는 자신이 다루고 있는 사상가가 추구한 보편적 교훈을 직접 해석해 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사상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사상 안에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적 교훈을 포함시켰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신 사상가의 이념을 당시의 국제정치현실의 역사적 맥락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사상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연구자 스스로가 보편적 교훈을 제시한다. 또, 어떤 이는 사상가의 이념을 전적으로 그의 역사적 맥락에 귀속시키면서, 어떤 이념도 그 자체로 보편적 교훈을 가질 가능성을 거부한다. 이 경우에도 보편적 교훈의 지향을 전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다. 다만, 보편적 교훈을 찾아야 하는 부담은 이제 ‘역사 속의 국제정치사상’을 전달받은 독자에게로 넘어간다. 독자는 현재의 행위자로서 또 역사의 관찰자로서, 연구자가 구체화하지 않는 보편적 교훈에 대한 영감을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정치사상의 보편적 교훈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며, 어

떻게 그 교훈에 접근해야 하는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이제 각 장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각 장의 저자들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1장은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사상에서 정치사상과 국제정치사상을 구분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정치사상의 중심 주제가 좋은 삶과 공동선을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해 어떤 정체가 바람직한가를 밝히는 것이라면, 이 주제는 곧바로 국제정치적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좋은 삶을 위한 이상국가는 결코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국가도 국제적 안보를 등한시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군인 계급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문제는 이 군인 계급이 외적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동료 시민에게는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국가>의 상당 부분이 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이상국가가 보편적으로 처한 국제적 현실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1장은 플라톤의 국제정치사상이 가지는 보편적 교훈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아울러 그것이 오늘날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정의 담론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그로티우스의 국제정치사상을 제시한 제2장은 대표적으로 사상가가 처한 역사적 맥락과 지성사적 맥락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사상가의 국제정치사상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다. 2장은 17세기 네덜란드 출신의 그로티우스가 사실상 ‘베스트팔렌의 사상가’로 일컬어져 온 사실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로티우스의 의도가 주권원칙에 기초한 국제관계의 수립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

고, 역사적으로도 베스트팔렌 조약에 그와 같은 사상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2장은 그로티우스 사상에 대한 회의주의의 영향력을 강조한 리처드 퉁(Richard Tuck)의 혁신적인 연구가 그로티우스 사상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는 데 어느 정도 유용하지만, 퉁의 해석이 당시의 영향력 있는 지성사적 사조로서의 회의주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점을 비판한다. 결론적으로 2장은 그로티우스가 회의주의자의 관점에서 전쟁이라는 위기를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전론에 관한 보편적 교훈을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제3장은 스피노자에게 과연 국제정치사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며, 스피노자의 국제정치사상에 접근한다. 이러한 물음을 던지는 이유는 스피노자가 베스트팔렌 체제가 등장하던 무렵 근대적 주권국가의 태동을 목격했고, 그 원리를 탐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사변적 철학자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3장은 이러한 스피노자에 대한 이중적 이해가 그의 사상과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따라서 3장은 스피노자의 저술 속에 존재하는 현실주의적 직관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의 철학적 입장이 이러한 국제정치적 직관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는가를 조심스럽게 타진한다. 요컨대, 3장은 스피노자가 국제관계에서 초월적이고 선형적인 법의 유효성을 부정하지만, 그렇다고 인간과 국가를 포괄하는 자연 전체에 내재하는 법칙의 유효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며, 더 나아가 그것이 국제정치 현실에 대한 내재적인 비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4장은 생-피에르 신부의 『유럽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제안』을 국제정치사적 맥락과 지성사적 맥락에서 검토한다. 4장은 생-피에르 신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쟁의 영원한 종식이 아니라, 상업이 영원히 번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었음을 강조한다. 세력균형 정책을 비판하고, 국가연합을 통해 영구평화를 제안한 것은 결국 상업의 번영에 있었다는 4장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의미심장한 함의를 전달한다. 4장은 “자유로운 교역을 통한 이성의 계몽에 희망을 두었던 생-피에르 신부가 열과 성을 다해 막고자 했던 것은 바로 무역이 전쟁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며, 생-피에르 신부의 국제정치사상이 갖는 보편적 교훈을 암시한다.

제5장은 전후기의 저작에서 수정적 입장을 보이는 칸트의 국제관계론을 최근 국제법철학 논의와 관련시켜 검토한 글이다. 특히 칸트 정치철학의 중심 주제 중 하나인 법집행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법 집행의 속성을 칸트의 국제관계론 안에서 조화롭게 해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정치사상사적 맥락이나 역사적 맥락에서 칸트의 사상에 접근한 글과 달리, 5장은 전형적으로 현대 정치철학의 맥락에서 분석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칸트의 국제정치사상에 접근하였다.

제6장은 헤겔의 인정이론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인정관계의 성립 기제가 무엇인가를 설명한다. 특히 헤겔의 인정이론이 국가 간의 상호신뢰에 기초한 국제협력과 이를 위한 규범적 질서의 형성에 어떤 함의를 주는가를 밝힘으로써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헤겔의 국제정치사상을 재조명하였다. 헤겔에 의하

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한 근대국가의 정체성은 크게 헌법과 같은 정치제도의 규범적 가치를 통해 대의되는 정치적 정체성과 역사 속에서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의 윤리적 감정과 연계된 사회문화적인 정체성에 의존한다. 특히 헤겔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서 있는 근대국가들의 상호신뢰와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물질적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상대 국가의 국민들이 자기 공동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윤리적 감정에 대한 인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한다. 6장은 전형적으로 사상가의 중심 개념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국제정치이론 및 실천에 기여하고자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장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연구자가 선택한 사상가의 국제정치사상에 접근한다. 국제정치사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은 국제정치사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편적 교훈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보편적 교훈에 대한 상이한 이해나, 이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법이 서로 배타적인 것만은 아니다. 역사적 맥락이나 지성사적 맥락, 그리고 사상가의 이념적 독자성에 대한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어떤 요소를 강조한다고 해서 다른 요소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편집본의 저자들은 국제정치사상의 본질과 위상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접근법을 동원하여 플라톤, 스피노자, 그로티우스, 생-피에르, 칸트, 헤겔의 국제정치사상을 해석하였고, 이들 국제정치사상이 담고 있는 다양한 수준의 보편적 교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독자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국제정치사상에 대한 인지도

가 현저히 떨어지는 현 국내 학계의 상황에서 독자적 학문 영역으로서 국제정치사상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출발점으로 본 편집본이 자리매김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마지막으로 제7장은 『세계정치』의 전통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에서 통과된 석사학위 논문 가운데 출판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선정된 논문에 지면을 할애한 것임을 밝힌다.

편집진을 대표하여

박성우